

# Dave Mathewson 박사, 신약문학, 강의 30, 야고보와 바울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신약 역사와 문학의 야고보와 바울에 관한 강의 30강의 Dave Mathewson 박사입니다.

좋아, 시작해 보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제임스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이유로 특정 텍스트 하나에 집중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하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야고보서의 핵심이자 그의 편지의 독특함과 특징을 요약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둘째, 우리가 이 책을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이것이 야고보와 바울 서신 및 바울의 가르침과의 관계에 대해 말하는 바에 관해서는 상당한 의문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그 본문을 살펴보는 데 약간의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만 우리가 이야기한 다른 두 가지 주제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야고보서를 구성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야고보서가 세 가지 다른 주제를 계속해서 순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때로 그것들을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지만, 시험과 인내의 주제, 부와 가난의 주제, 그리고 지혜와 말의 주제입니다.

나는 야고보와 야고보의 가르침,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 그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울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해 주로 초점을 맞추게 될 모든 주제에 대해 몇 가지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합시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바로 그 말씀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첫 번째

독자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날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 자신이 지속적으로 계시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비추어 대응하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괜찮은. 우리가 본 야고보 해석에 관한 문제 중 하나는 여러분의 노트에서 제가 지금 믿음과 행함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소개하기 위해 우리는 야고보서인 야고보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종종 바울 이후의 맥락에서 읽혀집니다. 즉, 우리는 그것을 읽는 법을 배웠거나 바울의 편지와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이해했다는 관점에서 읽는 데 익숙합니다. 특히 마르틴 루터의 유산과 그의 칭의에 대한 강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그것을 공로로 삼거나 벌기 위해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순수한 복음의 본질이 되었고 이제는 신약성서의 다른 모든 책을 측정하는 필터나 적어도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바울서신이 신약성서의 중심에 매우 훌륭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앞에 있고 그 뒤에 다른 모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성서 정경의 중심에는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어떻게 읽고 이해하는지를 측정하는 척도 역할을 하는 바울 서신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순차적인 읽기에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먼저 접한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신약의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설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에 오고 바울의 복음이 우리 마음 속에 완전히 자리잡은 야고보와 다른 서신들에 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과 칭의를 위한 길을 제공하셨는데, 이 길은 내가 공로를 얻거나 벌기 위해 수행하는 어떤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적절한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바울의 말을 보면, 그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신약의 나머지 부분을 읽는 데 거의 렌즈가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나는 우리 대부분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편지에 우선권을 부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신약성서의 나머지 부분을 읽는 일종의 격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고보서와 같은 책을 1순위로 대할 때 일어나는 일은 마틴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제임스가 완전히 거부되거나 적어도 무시될 것입니다. 당신이 바울에 맞서 싸울 때, 야고보는 거절당하거나 적어도 무시당하고 일종의 신약 정경의 주변부로 강등됩니다.

아니면 제임스를 재해석해서 제임스에게서 제임스를 구출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를 Paul처럼 들리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바울의 메시지와 똑같이 들리도록 재해석하거나 읽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신약성서 학생들은 이것을 정경 내에 정경을 세우는 것이라고 종종 부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의 더 큰 정경 내에는 정경 내의 다른 모든 책에 대한 척도로 등장하는 한 세트의 작품이 있습니다. 일종의 신흥 정경, 정경의 중심 위치를 갖는 척도입니다. 다른 모든 책은 이를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개 바울의 편지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 중 많은 부분이 마틴 루터의 유산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마틴 루터에게서 많은 좋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우리에게 자주 전해 내려온 것 중 하나는 우리가 바울 서신의 렌즈를 통해 신약성경을 읽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야고보는 최악의 경우 무시되거나 거부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같은 바울의 서신에 비추어 야고보가 재구성되고 재해석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첫째, 내가 말했듯이, 초기 신약성서 목록, 즉 신약성서 책 목록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흥미롭게도 야고보서를 바울 서신보다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그것은 단순히 초대 교회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책을 정렬하는데 관심이 없었거나 그것이 우리가 책을 읽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차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성서에 대해 이러한 사고방식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야고보에게 다가간 다음 나중에 바울의 편지를 읽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울을 해석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까요? 우리는 야고보의 입장에서 바울을 읽을 것인가, 그 반대의 입장에서 읽을 것인가? 그러나 나는 초대교회가 특정 책에 우선 순위와 초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책을 배열하는데 관심이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이 대개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이유는 사도행전의 대부분이 끝까지 사도 바울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책이 다음에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더 중요하다거나 신약성서의 나머지 부분을 읽을 수 있는 렌즈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야고보서에 관해서는 야고보와 바울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무엇보다 먼저 그들을 화해시키고 하나로 묶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교회는 이 두 책을 모두 성경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책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퍼즐 조각을 하나로 맞추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성경의 일부로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책들을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신학적 증인으로 허용했으며, 교회는 야고보서와 바울서신과 같은 책을 포함해야 했습니다. 서로 관련되어 있고, 어떻게 그것들을 함께 맞출 수 있는지.

하지만 동시에, 그러기 전에 작가 각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즉, 우리는 James를 Paul과 똑같이 들리게 만들 수

없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한데 모아 어떻게 서로 보완할 수 있는지, 교회가 경전으로 고백하는 이 완전한 기록의 정경 내에서 어떻게 함께 결합할 수 있는지 묻기 전에 그것들이 그들 자신의 목소리와 독특한 풍미를 갖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 우선, 이 작가들의 독특한 점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강조했는가?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합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그들은 왜 그런 방식으로 글을 썼을까요? 야고보와 바울은 서로 충돌합니까? 그들은 서로 정반대입니까? 그들은 같은 말을 하고 있나요? 비슷한 말을 하지만 강조점이 다른가요? 아니면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로 합칠 것인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주로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은 14절로 시작하는 야고보서 2장입니다. 이 부분은 야고보가 말하는 유일한 부분은 아니지만 믿음과 행함과 관련된 야고보의 가르침에 대해 가장 확장된 부분입니다.

그는 1장 첫 구절부터 행함과 믿음에 관해 말하고 있으며, 다른 곳에서도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확장된 가르침입니다. 야고보는 형제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입을 것과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라, 배불리 먹으라 하며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함으로 네 믿음을 보이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으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들도 그것을 믿고 떨느니라. 너 어리석은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보이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역사했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바울이 인용한 본문도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 말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멈출 것이다.

그리고 가장 많은 관심을 끈 것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공식적으로나 언어적인 수준에서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야고보로 하여금 "아니다. 믿음만으로도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정식화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점은 James가 Paul에게 응답했는지 또는 그 반대인지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야고보와 바울이 서로를 고려하여 글을 썼다고 의심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제임스가 폴의 과잉 반응에 반응한 것일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글에 과민 반응을 보였는데, 이제 야고보는 그에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임스가 폴의 의견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야고보와 바울이 서로를 알고 있었고 그들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응답하기 위해 글을 쓰고 있다는 좋은 증거가 있는지 정말로 의심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야고보서 2장을 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방금 읽은 마지막 구절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바울의 진술과 가장 노골적으로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 당신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의롭게 됩니다. 반면에 바울은 당신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선, 해당 진술의 특정 구성 요소가 별도의 작성자에 따라 다르게 사용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야고보와 바울의 차이점을 처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야고보와 바울이 서로 매우 다른 문제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토론, 특히 갈라디아서에 대한 토론을 기억한다면, 바울은 유대교도라고 분류된 그룹,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룹과의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필요했지만, 모세의 율법에도 복종해야 했습니다.

로마서에는 심지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는 것, 곧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 율법을 가진 것과 그것을 자랑하는 경향이 있는 것, 지위와 지위를 자랑하는 것이 있다고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바울이 다루고 있는 문제는 주로 율법주의와 민족주의였습니다. 민족주의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기 위해 율법을 사용하는데, 그 율법을 의지하여 이방인에게 강요함으로써 그들도 율법주의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옹호되거나 정당화되는 것.

James는 매우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문제의 일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읽기 시작할 때 구절로 시작하고, 보통 야고보서 2장의 18절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2장의 주요 주제는 믿음과 행함이 아닙니다.

주요 주제는 빈곤과 부의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14절에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믿음과 행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형제자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먹을 것과 일용할 것과

입을 것과 일용할 것이 부족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지내며 배부르라 하며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에 관한 야고보의 모든 논의는 그의 독자 중 일부가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지 못한 맥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떤 형제자매가 궁핍한 것을 보면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지내라, 배부르게 하라 하시고 당신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James가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의 문제와 거의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유산과 율법 소유에 의존하고 심지어 이방인에게도 그것을 강요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임스는 정반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선 행위를 보여야 한다고 변명하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깔개 아래서 그 모든 것을 휩쓸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임스는 이제 이에 응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첫 번째 단서는 야고보와 바울이 매우 별개의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질문하기 시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조화시킬 수 있습니까? 제임스가 풀처럼 들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대신에 우리는 이 두 저자가 완전히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고보가 바울의 상황에 대해 정확히 무엇을 말했는지, 그가 야고보의 상황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모세 율법과 관련하여 율법주의와 민족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고 있습니다. 제임스는 무관심, 즉 사랑과 자선의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 것, 그리고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단순히 무관심을 보이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진술에서 깨달아야 할 또 다른 사실은,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바울의 진술과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야고보의 진술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만 당신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두 진술에서 야고보와 바울은 참된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믿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술에서 바울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야고보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약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할 때 그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헌신,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 마음의 신뢰와 헌신이라는 의미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제임스가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을 때, 나는 문맥을 보면 그가 주로 올바른 믿음에 대한 지적 동의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야고보가 기본적으로 19절 2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이는 유대인의 쉘마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 주는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믿으면 좋다, 잘한다, 그렇게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어서 그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조차도 이것을 믿고 그 전망에 몸서리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의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거나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으로는 그것이 옳지만, 같은 것을 이해하고 고백하는 귀신들과 다르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에 지적 요소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임스는 이것이 틀렸다거나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림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제임스가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교회사를 통틀어 많은 사상가들을 통해 보여졌듯이 믿음에는 확실히 지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은, 믿음은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믿음이 아니며, 속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며,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단순히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좋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림의 일부일뿐입니다. 그리고 제임스가 계속해서 제안할 것은,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게 되겠지만, 그것은 단지 출발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야고보는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요소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그 중 하나는 이미 지적인 믿음, 즉 신에 대한 믿음, 신은 하나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바울의 경우와 유사하게, 바울이 믿음으로 의미하는 바는 야고보가 믿음을 특히 구약의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헌신과 신뢰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구성 요소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올바른 믿음에 대한 지적 동의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헌신, 그것에 대한 신뢰와 온 마음을 다한 헌신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세 번째 구성 요소는 신실함입니다. 그 신뢰와 헌신은 실제로 시험 중에도 그 자체를 보여주는 지속적인 신실함을 낳습니다. 즉, 야고보는 참된 신뢰와 헌신이 결국에는 참된 신실함으로 끝나거나 결국에는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신뢰하고 헌신한 다음 자신이 믿는 사람의 약속과 명령에 충실하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개념, 즉 지적인 믿음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동의, 온 마음을 다한 신뢰와 헌신, 그러나 특히 그 믿음을 시험하는 관점에서 지속적인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아브라함을 예로 든 이유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세 가지 구성 요소 모두의 예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믿음의 유형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 세 가지를 모두 가지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야고보의 요점입니다. 그 중 하나만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글썄요, 우리가 나중에 조금 이야기하게 될 것은 사실 저는 야고보와 바울이 믿음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결합하는 방식을 강조할 수도 있지만 강조하는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확실히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이해하는 것, 신앙의 지적 요소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신뢰에 확실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우리는 바울이 순종으로 예시되는 지속적인 신실함에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나는 그것들을 세 가지로 보는 것을 거부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세 가지 별개의 것으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의 참된 믿음의 필수적인 부분이거나 필수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제임스의 문제는 그가 첫 번째 요소에만 만족하는 독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두 번째 요소도 단지 신뢰나 헌신일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그것은 지적인 상승을 넘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신실함으로 나타나는 완전한 헌신의 다른 측면에 관해서는, 비록 시험을 받더라도 그의 독자들이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식으로 묘사한다면, 아마도 그는 당신이 실제로 욕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는 그렇지 않다는 뜻일 것입니다. 당신은 실제로 그 진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구원과 그에 따르는 행위와 동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면 참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른쪽.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말할 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 사람, 당신 말이 맞아요.

제임스는 당신이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믿음이 없다고 하십니다. 내 말은,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얼마나 더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는 죽은 것 같다거나 아프다거나 단지 부채질을 좀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믿음이 죽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당신이 믿음의 일부를 잃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조금 해결하면 됩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당신이 모든 것을 갖고 있지 않다면 당신의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소용 없어.

공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Paul과 James는 서로 다른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모세의 율법에 복종시키려고 노력하는 유대교도들에게 말하면서 율법이 경계 표시이자 하나님의 백성을 식별하는 진정한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주의와 민족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임스는 무관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둘 다 믿음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신이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하고 전적인 신뢰와 헌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 나는 그가 특히 올바른 믿음, 즉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단순한 동의를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작동합니다.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할 때 그는 주로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사람들의 경계선으로 사용했던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의지하는 것이고 심지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자랑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반면 야고보의 경우 구약의 율법이나 그 일부를 반드시 배제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제가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2장의 작품에 대해 말할 때 주로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무엇이 효과가 있나요? 야고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고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할 때, 야고보는 2장에서 특히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거죠. 모세의 율법이 명한 사랑과 자선의 행위. 나는 제임스가 그것을 얻었고, 예수의 가르침도 거기서 얻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행위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는 주로 구약의 율법을 경계로 삼거나 자신이 율법을 소유하고 지킬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과 자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난한. 그래서 그가 당신이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고 말할 때, 제임스의 말을 빌리자면, 당신은 단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에 동의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즉 보여줌으로써 의롭게 됩니다.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민과 사랑과 자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등을 돌리려면, 그런 상황을 보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등을 돌리는데 어떻게 참된 믿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당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내가 읽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Paul과 James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입증되고 정당화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야고보는 최소한 선한 행위도 사실의 일부로 간주되는 구약의 개념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정당하거나 의롭다고 선언할 때 고려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바울이 포함하는 것, 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따르는 행위나 그것을 예시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이 아브라함에게서 사용하신 예를 살펴보십시오. 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임을 너희에게 보이려고 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

조상이 아니었고, 우리가 1장 1절을 이해했듯이, 야고보가 말 그대로 흘러져서 그들의 고국인 예루살렘에서 분리된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흥미롭습니다.

이제 이르시되 우리 아브라함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제 그 내용은 어떤 텍스트에서 나온 것인가요? 구약성서 조사에서 배운 내용을 기억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적어도 그 책은 말해 줄 수 있나요? 창세기.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대략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면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언급한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일은 22장에서 일어나며, 이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2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산으로 데려가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당연히 제지당하는 기록입니다. 사실 창세기 22장조차도 하나님의 의도는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을 시험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 서술적인 설명으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James가 이 예를 사용하는 것은 확실히 정확하지만 흥미롭습니다.

야고보는 창세기 22장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너희가 보거니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곧 15장 다섯 장 전이라. 따라서 기본적으로 야고보는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뢰에 기초한 최초의 선언과 그 신뢰에 대한 시험, 칭의를 낳는 믿음에 대한 시험 사이의 구별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임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지속적인 시험과 그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 모두를 전체 그림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구절이 매우 흥미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22절에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야고보는 믿음이 행위를 통해 온전해지거나 완성되기까지는 믿음 자체가 불완전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올바른 믿음에 대한 단순한 동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자신이 수행하는 작업을 통해 유효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것이 죽었고 쓸모가 없으며 당신을 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야고보는 믿음을 초기, 예, 최초의 헌신과 신뢰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믿음의 일부일 뿐이며 선한 행위를 통해 시험되고 보여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좋은 일을 통해 검증됩니다.

성숙하고 완벽해졌습니다. 그가 창세기 15장의 인용문을 소개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그것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일로 인해, 그 순종의 행위는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진정한 헌신과 신뢰의 행위를 온전하게 하고 타당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후자가 없으면 전자는 죽은 것이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한 주석에서 말한 방식을 좋아합니다. 유일한 참된 믿음은 충실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James가 말하는 것을 매우 정확하게 요약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진정한 믿음은 오직 신실한 믿음, 즉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과 참된 신뢰와 헌신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지속적인 순종과 신실함을 통해 자신을 확증하고 완전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와 바울의 관계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물어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야고보와 바울을 정경 내에서 다시 한 번 토론을 벌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야고보와 바울이 없이도 적어도 신약성경 정경 내에서는 그들이 서로 매우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 충돌하지도 않고 전혀 모순되지도 않습니다. 이제 무대로 넘어가는데, 이 두 목소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믿음이 단지 지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더욱이 바울은 참된 믿음에는 항상 행위가 동반되고 연관되어 있음을 똑같이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에베소서 2장과 같은 본문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 모두는 첫 번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그는 새 창조와 새 언약의 언어를 사용하여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는 새로운 창조에 참여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축복은 모두 새 언약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새 언약의 일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 언약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의상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과 새 창조에 대한 더 넓은 이해에 비추어 볼 때, 바울 자신은 행위가 사람의 믿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고, 이 둘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야고보의 의견에도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야고보와 같은 방식으로 말했는지, 아니면 야고보가 바울처럼 자신을 정확하게 표현했는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매우 다른 강조점을 유지했을까요? 한 분의 말씀이 마음에 듭니다. 그는 적어도 신약의 바울과 신약의 야고보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면, 미소를 짓고 고개를 흔드는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동의.



그러나 의견 차이 때문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과 강조된 내용 때문에 눈썹을 한두 개 치켜올리고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더 넓은 신약성서 정경 내에서 두 사람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자신의 혈통과 지위와 능력을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일과 능력을 생각하고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아마도 그 시점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바울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로, 어쩌면 행함이 우리 구원의 일부가 되는 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선한 행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일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거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계획을 따를 수 있거나 어떻게든 과거의 회심 경험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우리는 야고보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행함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둘이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두 목소리는 카논에서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다시 그들이 다루고 있던 문제로 돌아가서 기능합니다.

그것들은 우리 삶의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에 자부심을 갖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혹은 선한 일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해서 단순히 자신을 망치고 때릴 때 우리는 바울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들이 실제로 중요하지 않거나 과거의 구원 경험에서 단순히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야고보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좋은. 그것에 대해 질문이 있나요? 나는 단지 다른 두 가지 주제를 간단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나는 그것들이 당신의 노트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James가 매우 빠르게 작성한 몇 가지 다른 테마가 있습니다.

이 섹션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가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했는지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지만, 그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좋은.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임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우리가 원하는 때에 살고 있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나는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 즉 삶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신약성서가 아무런 희망도 제시하지 않는다고 담대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약성경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Paul이든 James이든 James가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좋습니다. 간단히 살펴보아야 할 다른 두 가지 주제는 시련과 인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들은 당신의 노트에 없지만 시련과 인내, 또는 시련 중의 인내라는 주제는 야고보서 전반에 걸쳐 몇 번 반복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1장에서 다시 거의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내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을 때마다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시험하고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 삶에 시련을 가져오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몇 구절 뒤에 가서 13절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 하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나 오직 자기의 욕심에 미혹되어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 둘을 합치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기 위해 시련을 가하시지만, 우리 삶에 닥치는 유혹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는 그러한 시련이 죄의 유혹으로 변할 때 야고보는 하나님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전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했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과 정욕에 이끌려 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한 이 책의 또 다른 명백한 차이점은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말했듯이 야고보가 다루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으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야고보는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를 분명히 알고 있으며, 그 중 하나는 교회 내, 심지어 교회와 교회 밖의 사람들 사이의 사회 경제적 격차로 보입니다.

1장 9절부터 11절까지에서 야고보는 자신의 독자층에 속한 부유한 기독교인, 유대 기독교인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즉, 여기서는 부유하고 오로지 부에 기초하여 자신을 평가하려는 유혹을 받는 기독교인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장 9절과 11절에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믿는 자나 낮은 그리스도인은 일으킴을 자랑하고 부자, 아마도 그리스도인, 유대 그리스도인, 부유한 자들은 자기 있음을 자랑할지니라. 부자가 들꽃처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해가 돌아 뜨거운 열기로 밭을 말리며 꽃이 떨어지고 그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자도 이와 같으니라

바쁜 삶 속에서 그들도 시들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부유하고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도 들판의 꽃처럼 일시적인 것으로 자신의 지위를 평가하거나 평가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5장에서 야고보는 다른 그룹에게 연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유한 비기독교인, 아마도 지주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으며, 미안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James가 말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취하는 다른 어조에 주목하세요. 부자 들이여 , 오라 너희에게 닥칠 재난을 생각하여 울고 통곡하라. 그것은 심판으로 인한 애통과 애통을 뜻하는 구약의 표현이었습니다.

당신의 부가 썩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지막 수업 시간을 비교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좀먹었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그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임이니라 당신은 마지막 날을 위해 보물을 쌓아 두었습니다. 들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너희가 주지 아니한 삯이 이제 소리 지르며 추수꾼들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들렸느니라.

당신은 이 땅에서 사치와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너희는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당신은 당신에게 저항하지 않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음 절에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인내하라.” 따라서 5장에서 야고보는 다른 그룹에게 연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그룹도 비기독교인이라고 제안했지만, 나는 첫 번째 그룹을 볼 수 있는 좋은 증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와 부에 관한 책 전체를 순환하는 이 주제에서 그는 부유한 기독교 독자들에게 부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비기독교 부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 내의 회원들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해 경고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주님이 오시는 것에 비추어 인내심을 가지라고 촉구했습니다. 좋은.

따라서 이것들은 함께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는 지침이 있는 두 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여러분이 야고보가 하고 있는 일과 부와 가난에 대한 그의 가르침, 그리고 시험과 인내와 시련에 대한 가르침을 이해한다면, James가 하는 일을 이해하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전혀 없으며 이러한 주요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일 뿐입니다. 좋은. 제임스에 대해 또 질문 있나요? 확실히, 당신은 나를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응. 1장을 생각하고 있나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련을 여러분에게 내리신다고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특히 2절에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을 때마다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이 이러한 일을 허용하고 시험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말하고 싶은, 시험한다는 개념은 신이 신학자이든 간에 어쨌든 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일어나도록 허용한다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우리 삶에 시련을 가져오지만, 분명히 야고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믿음을 시험하는 어떤 방식으로 시련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 당신은 성경 연구 전공자입니까? 내 생각엔 그래, 그래.

좋은. 오른쪽. 응. 응. 믿음의 기도는 치유될 것입니다. 응.

지금은 여기서 수업을 중단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응. 13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쾌활한 사람이 있나요? 그들은 찬양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너희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또 누구든지 죄를 지은 자는 사하심을 얻으리라. 응.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장로들을 불러 기도 하면 낫는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영적인 질병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연관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 중 하나는 야고보와 바울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가 아마도 복음서 및 예수님의 가르침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것을 보면 볼수록 여기서의 치유는 영적인 질병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이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적인 질병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모든 병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종의 백지 기도입니까? 한편으로 나는 이것을 희석시키고 싶지 않으며 제임스 5세의 자격을 모든 종류의 것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과 이것과 이것과 이것이 끝없이 자격을 갖추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 측면에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구하는 것과 기도하는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야고보서 3장, 아 미안해요, 야고보서 4장에서는 여러분 가운데 갈등과 다툼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신 안에서 전쟁을 벌이는 갈망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을 원하지만 갖지 못하여 살인을 하고, 탐내지만 얻지 못하여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신이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가 잘못된 동기로, 즉 너희의 쾌락을 위하여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최소한 제임스는 우리가 그것에 비추어 5장을 이해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구하려고 애쓰지 않아서 구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잘못된 동기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오세요. 또 지금 그는 부와 부에 대한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우리는 이러저러한 곳으로 갈 것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한 나라에 가서 1년을 보내고 사업도 하고 돈도 벌어요. 그는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조차 알지 못한다. 당신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교만하게 자랑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야고보가 그의 독자들이 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그의 전체 가르침에 비추어 5장에 나오는 지시 사항을 이해하도록 의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구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저것을 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자랑하는 자들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5장을 희석하지 않고 치유를 위한 기도, 즉 장로들을 불러 기도하도록 청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약화시키지 않고, 그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고 취하는 대신, 야고보는 확실히 우리를 위해 의미한 것입니다. 3장과 4장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대한 그의 전체 가르침과 1장의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부활절 잘 보내시고 오늘부터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신약 역사와 문학의 야고보와 바울에 관한 강의 30강의 Dave Mathewson 박사입니다.